

“새로운 시장 개척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 할 것”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쇼핑·달팽이장터 등 외부파트너와 지역상품 판로 촉진 방안 논의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10일 라이브Post홀에서 도내 15개 우체국 영업과장과 우체국쇼핑·달팽이장터 외부파트너, 우편사업진흥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지역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했다.

전주농협 최명호 팀장은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우체국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하여 생산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체국과 공동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철 청장은 “우체국에서는 우체국쇼핑과 달팽이장터를 통해 전북지역 상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작년 한해 12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설에도 생산농가 등 외부파트너와 협업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윌러 우체국쇼핑은 설을 맞이하여 오는 1월22일(월)부터 2월9일(금)까지 19일간 도내 96개업체 677개 상품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지역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 지마켓 등 오픈마켓과 공동으로 자세한 문의는 <http://mallpost.go.kr> 또는 가까운 우체국 1588-1300으로 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10일 라이브Post홀에서 도내 15개 우체국 영업과장과 우체국쇼핑·달팽이장터 외부파트너, 우편사업진흥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지역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했다.

순창 페어리 엔젤댄스팀,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에 100만원 기탁

순창 페어리 엔젤댄스팀은 그동안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재능기부를 하고 훈풍이 모은돈 100만원을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에게 써달라며 순창군청을 찾아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페어리엔젤댄스팀을 맡고 있는 이정현 강사는 7년전 초중생(페어리 8명,엔젤 7명)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방과후 활동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재능기부를 통하여 모은돈을 3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후원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1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익산시 삼성동통장협의회, 삼성동행정복지센터에 700만원 전달

익산시 삼성동통장협의회(회장 권석정)는 지난 9일 삼성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성금 700만원을 기탁했다.

최근 경제적 불황과 사회적 이슈 등으로 기부문화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성금은 삼성동 통장 70명이 정성껏 모은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삼성동 지역에 훈훈한 사랑을 전하고 있어 기부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평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삼성동 통장들은 지난 2016년 6월 복지통장으로 위촉된 이래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려운 이웃 100여 세대를 발굴한 바 있으며, 이웃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삼성동행정복지센터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삼성동 통장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과 복지활동가 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며, 지난 연말에는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하여 홀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저소득 이웃 200세대(750만원 상당)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복지통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등록(일간)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등록번호 전북 7400016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용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6-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7-886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6-2404	완주지사 246-8866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66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9157
호지사 010-8645-9366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알려드립니다

▲풍남테니스클럽 회원님들, 2018년 만에 모두 함께 반기운 마음으로 재회합니다
=일시: 1월 12일(금), 장소: 이종분(전주시 중화산동)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신년 하례식 가져

임실군 애향운동본부(본부장 박재만)는 10일 애향운동본부 사무실에서 '2018 신년 하례식'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신년하례회는 다사다난했던 작년 한해를 돌아켜 보고 희망찬 무술년 새해의 애향운동본부 사업계획을 설계함은 물론, 새로 가입한 회원들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애향운동 헌장낭독, 케이크 절단식, 회원들간에 새해 덕담 나누기 순으로 진행됐다.

박재만 본부장은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는 조건과 이유가 없다는 신념으로 무술년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잘살고 희망 넘치는 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신입 회원으로는 대한적십자 임실군협의회 정일운 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이종관 사무국장, 희망 공인중개사 박정선 대표 등 4명이 가입했다. /임실=진홍경 기자

장계면 덕유회-장계고등학교총동창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10일 장계면(면장 이길재)에서는 덕유회(회장 정영모)와 장계고등학교총동창회(회장 김태철)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30만 원을 각각 기탁했다.

이길재 장계면장은 “덕유회와 장계고등학교총동창회의 사랑의 손길에 큰 감사함을 느끼며, 기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영모 덕유회 회장은 “이웃돕기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상 술선수범하고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사회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계면 덕유회는 지역사회 고유문화 보존과 역사 의식을 계승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로 작년 10월에는 김동신의병장추모사업회를 조직하여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장 김동신의 의병활동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를 주관한바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과 1:1 공감 토크 '호응'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은 분서 전 기능 및 지·파출소를 방문 직원과 1:1 공감 토크를 통해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 진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편한 분위기에서 일상적 대화부터 동료의 선행사례와 고민을 청취하고 신임 순경에게는 앞으로의 바른 경찰생활을 위해 선배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재 서장은 “서로가 배려·존중하는 생활을 습관화 하고싶은 직장 분위기가 확립 내부고과 만족이 선행될 때 주민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고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경찰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신속대응 활동 총력

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는 9일부터 대설주의보 발령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시민의 교통안전에 확보하기 위해 상습결빙구간 및 사고가 잦은 고가, 터널 등에는 안내표지, 입간판을 설치하고, 특히 교차로, 지하차도, 부전동 방산재·내장동 추령재, 산내 구절재 등 사고 위험구간에 대해 교통·지역경찰관을 배치하고 수신호로 교통 소통확보 및 서행을 유도하며, 국토관리사무소, 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교통소통 해결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학교로 전해주세요

희복한 교육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DDO OFFICE OF EDUCATION

지난 4월 전주 우원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원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반은 9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